

청소년 강점척도의 구성타당도 분석*

임 그 린 김 기 년 탁 진 국[†] 김 태 은
임 광 모 김 거 도 방 준 석 임 슬 기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김기년과 탁진국(2013)의 청소년용 강점척도를 재 타당화 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표집을 통해 강점검사의 타당도, 특히 구성타당도를 재분석하여 동일한 20개 요인구조가 도출되는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요인구조가 전체 청소년, 성별(남/여), 학년(중학교/고등학교), 남자(중/고등학생), 여자(중/고등학생) 등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33,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총 32,640명의 자료를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20개 요인과 94개 문항을 각 집단에 적용하여 동일한 요인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 즉 전체 응답 집단, 여학생 전체 집단, 남학생 전체 집단, 고등학생 전체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중학생 전체 집단, 남자 중학생 집단,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 동일한 20개 요인이 도출되어, 20개 요인구조모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인 20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0개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구성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었다. 한편 남자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는 예외와 배려 요인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19개 요인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4개 요인의 요인명이 변경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 강점, 청소년 강점 척도, 구성타당도

* 이 논문은 2014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02-940-5424, E-mail: tak@kw.ac.kr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심리학에서도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데 치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인간의 행복과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연구인 긍정심리학이 대두되고 있다. Seligman(2002)은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강점을 찾아내어 계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리(200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발달적 스트레스와 함께 대입중심의 경쟁지향적인 학업과 획일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학교, 가족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한다(송정두, 1981, 재인용). 이를 반증하듯 2011년도 5월 4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OECD 23개 회원국 중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같은 해 한국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가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410명을 대상으로 한 ‘2011 한국 어린이 및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 중 65.98점으로 2010년부터 2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0, 2011).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개인의 재능과 강점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강점(권석만, 2008)을 계발하고 강화한다면, 청소년기의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나 심리적 장애와 같은 부정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다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김기년, 탁진국, 2013),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강점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까지 강점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Clifton과 Nelson(1992)은 강점을 ‘한 사람의 재능 및 그와 관련된 지식, 기술, 노력을 결합한 것이며 특정 과제에서 일관되게 완벽에 가까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착상(Ideation), 탐구심(Input), 조정(Arranger) 등 34개 강점 테마가 포함된다.

두 번째로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강점을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6개의 핵심 덕목(지적 능력 및 지식, 용기, 자애, 정의, 절제, 초월)이 포함되고, 하위 요인으로는 창의성(Creativity), 호기심(Curiosity), 판단력(Judgment/Critical Thinking), 학구열(Love of Learning)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Linley와 Harrington(2006)은 강점을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하여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60개의 하위 강점이 포함된다.

이러한 강점은 개인의 행복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었을 때, 일에 대한 성취도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lack, 2001; Hatter, 1998). 일반적으로 강점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부심, 만족감, 기쁨,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

(Seligman, 2002). 특히, 청소년에 대한 강점 기반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정환(2012)은 강점기반의 진로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고, 임영진(2012)의 연구에서는 성격 강점이 정신적 웰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강점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전 생애 발달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olby, James, & Hart, 1998).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검사가 개발되었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강점검사로는 34개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Clifton Strengths Finder(Asplund, Lopez, Hodges, & Harter, 2007)와 2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VIA검사(Peterson & Seligman, 2004), 그리고 60개의 강점을 측정하는 Realise2 검사(Linley, Willars, Stsirs, Page, & Biswas-Diener, 2012) 등이 있다.

청소년용 강점검사로는 Clifton Strengths Finder의 청소년판 검사인 Clifton Youth Strengths Explorer(CYSE)와 10-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VIA 척도의 청소년판인 VIA-Youth검사(Park & Peterson, 2005)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강점검사가 학회에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김기년과 탁진국(2013)의 연구가 유일한 상태이며 청소년의 강점에 관한 연구도 드문 실정이다. 또 국외에서 사용되는 강점검사의 경우, 강점요인의 개수가 성인용(24개)과 청소년용(20개)이 다르고, 성인용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청소년용에서 사용하는 요인명칭이 아예

다르거나 청소년 검사의 경우, 성인용과 비교하여 요인 수는 같지만 단어가 청소년에게 다소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캘럽에서 만들어진 검사처럼 요인수가 적은 경우 등(김기년, 탁진국, 2013)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점을 측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김기년과 탁진국(2013)은 기존 연구들과 교사와 학부모와의 개방형 설문과 면담, 그리고 현직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특별활동, 진로지도, 교과학습발달, 행동특성종합의견 등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는 학생특성기술문 등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260개 문항과 27개 강점요인을 도출하였다. 27개 구성요인별로 각각 8개에서 11개의 총 256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한 후 810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청소년 928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 구성개념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107개 문항으로 구성된 20개 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20개의 요인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 부하가 낮게 나온 문항들(예: 공정성1, 지혜5, 대인관계2, 진실함9, 10, 용기5)이 있었고, 주로 서울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사례수가 충분치 않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검사의 개발은 단 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요인구조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기에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기년과 탁진국(2013)의 청소년용 강점척도를 재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의 표집을 통해 강점검사의 타당도, 특히 구성타당도를 재분석하여 동일한 20개 요인구조가 도출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 요인구조가 전체 청소년을 남자,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 등 세부 집단별로 구분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방법

방법

조사대상 및 절차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33,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집은 서울지역 14,137명(43.2%), 경기 지역 6,756명(20.8%), 인천 221명(0.7%), 강원 지역 784명(2.4%), 충청 지역 251명(0.8%), 대전 지역 105명(0.3%), 전라도 지역 1,700명(5.2%), 광주 지역 2,618명(8.0%), 경상도 지역 2,824명(8.7%), 대구 지역 748명(2.3%), 부산 지역 1,164명(3.6%), 제주 지역에서 1,332명(4.1%)이 취합되었다. 각 학년별로는 중학생 총 20020명(61.7%) 1학년은 5,611명(17.4%), 2학년 6,632명(20.4%), 3학년 6,453(19.8%)이며, 고등학생 총 12,491명(37.9%) 1학년 3,658명(11.1%), 2학년 4,944(15%), 3학년 3,889명(11.8%)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총 32,64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표 1. 빈도분석

		구분	명(%)
성 별		남학생	16,841(51.6)
		여학생	15,794(48.4)
		미응답자	5(0.01)
		총계	32,640(100.0)
중 학 생		중학교	20,020(61.7)
		1학년	5,611(28.0)
		2학년	6,632(33.1)
		3학년	6,453(32.2)
		남	9,813(49.0)
		여	10,203(51.0)
고 등 학 생		총계	32,640(100.0)
		고등학교	12,491(37.9)
		1학년	3,658(29.3)
		2학년	4,944(39.6)
		3학년	3,889(31.1)
		남	6,950(55.6)
		여	5,540(44.4)
		미응답자	129(0.3)
		총계	32,640(100.0)
	지 역		서울
		경기도	6,756(20.7)
		인천광역시	221(0.7)
		강원도	784(2.4)
		충청도	251(0.8)
		대전광역시	105(0.3)
		전라도	1,700(5.2)
		광주광역시	2,618(8.0)
		경북	311(1.0)
		대구광역시	748(2.3)
		경남	2,513(7.7)
		부산광역시	1,164(3.6)
		제주도	1,332(4.1)
		총계	32,640(100.0)

표 2. 20개 청소년 강점 정의

강 점	정 의	문항수	Cronbach alpha
경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스스로의 업적이나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6	.812
공정성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동일하게 대한다.	3	.775
끈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려 노력한다.	6	.878
낙관성	낙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3	.738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적합한 행동을 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다.	4	.861
도덕성	윗분들이나 속한 조직에 대하여 강한 윤리적 도덕률을 가지고 예절바른 행동과 말을 한다.	3	.689
리더십	일이 진행되도록 나서서 집단을 격려한다. 집단 활동을 잘 관리하고 이끄는 능력이 있다.	6	.906
미래지향성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6	.875
배려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동기와 감정을 인식하며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그들을 돕고 돌본다.	6	.824
신중함	매사 언행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며, 후회할 만한 것은 하지 않는다. 모든 순간을 깊이 있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5	.789
신체활동	운동을 잘하는 편으로 신체적 체육활동을 좋아한다. 남들보다 쉽게 운동을 배운다.	6	.937
예술성	미적 재능이 있으며,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과 예술작품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5	.792
용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위협, 도전,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	5	.771
유머	웃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이 미소를 짓게 한다. 재미있는 분위기를 공유함으로써 밝은 면을 볼 수 있게 만든다.	6	.917
의사전달	발표나 말을 잘하는 편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이 쉽게 이해되도록 잘 전달할 수 있다.	5	.852
자기조절력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욕구와 정서를 통제함으로써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표현과 행동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4	.789
지적 능력	아는 것이 많은 편으로 지적인 정보습득이 빠르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제해결능력이 있다.	3	.694
진실함	책임감 있게 모든 일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으로 주변의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는다.	2	.653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	5	.872
학구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한다. 배우는 것을 즐기워한다.	5	.867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전체 32,640명 중 남학생이 16,841명(51.6%), 여학생이 15,794명(48.4%), 미응답자 5명(0%)이었다. 중학생은 20,020명(61.3%), 고등학생은 12,491(38.3%), 미응답자 129명(0.4%)로 중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전체 중학생 중 남자 중학생은 9,813명(49%), 여자 중학생은 10,203명(51%)으로 여자 중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고등학생 중 남자 고등학생은 6,950명(55.6%), 여자 고등학생은 5,540명(44.4%)으로 남자 고등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측정도구

청소년 강점검사

청소년 강점 요인으로 김기년, 탁진국(2013)에 의해서 얻어진 20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의 청소년 강점 요인에 대한 정의와 문항 수, 신뢰도(Cronbach alpha)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방법

김기년, 탁진국(2013)의 청소년 강점척도의 타당도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0개 요인 구조를 확인한 후, 모형 부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할 때 전체 응답자, 성별(남/여), 학년(중학교/고등학교), 남자(중/고등학생), 여자(중/고등학생) 등 모두 8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대해 주성분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김기년, 탁진국(2013)의 청소년 강점척도의 구성타당도 재검증을 위해 전체 응답자(N=32,640) 집단에 대해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기법을 통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07개 전체 문항에 대해 20개 요인을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3개의 문항이 다수의 요인들과 중복되어 관련되면서 이전 연구와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오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요인에 중복되어 관련되어있는 문항, 다른 요인과 더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진실함 요인 문항 3개, 낙관성 요인 문항 2개, 공정성/도덕성/학구열/자기조절력/신중함/대인관계/지혜/창의력 요인 문항 각 1개)들을 순차적으로 제외시켜 나갔다. 그 결과, 총 13개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표 3에 제시된 94개 문항으로 구성된 20개 요인구조일 때 해석의 용이성과 요인구조가 가장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함 요인의 진실함1(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 편이다), 진실함3(친구들은 나를 믿음직스러워한다), 진실함5(나는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문항은 배려요인과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 내용에서도 타인(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배려 요인과 중복

표 3. 청소년강점척도 요인분석 결과(전체 응답자 집단, N=32,640, 요인 20개, 문항 94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문항																				
유머1		.82																		
유머4		.82																		
유머2		.81																		
유머5		.74																		
유머3		.64																		
유머6		.56				.32														
신체활동5		.88																		
신체활동3		.88																		
신체활동6		.87																		
신체활동1		.85																		
신체활동2		.81																		
신체활동4		.77																		
관기6			.73																	
관기1			.70																	
관기4			.69																	
관기5			.65																	
관기3			.64																	
관기2			.58																	
미래지향성6				.82																
미래지향성5				.79																
미래지향성3				.74																
미래지향성1				.69																
미래지향성4				.68																
미래지향성2				.67																

(계속 1)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리더십5					.76															
리더십3					.74															
리더십1					.67															
리더십4					.67															
리더십2					.56															
리더십6	.39				.55															
배려3						.65														
배려1						.62														
배려2						.60														
배려6						.57														
배려4						.57														
배려5						.52														
창의력3							.75													
창의력5							.73													
창의력2							.72													
창의력1							.72													
창의력4							.64													
경쟁5								.75												
경쟁3								.75												
경쟁4								.68												
경쟁2								.65												
경쟁1								.61												
경쟁6								.61												

(계속 2)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학구열4									.74											
학구열6									.73											
학구열3			.33						.66											
학구열5			.34						.64											
학구열2									.60											
예술성4									.78											
예술성1									.78											
예술성2									.73											
예술성5									.63											
예술성3									.57											
의사권달1									.66											
의사권달4									.58											
의사권달3					.37				.54											
의사권달2									.54											
의사권달5		.33							.53			.31								
신중함3									.75											
신중함4									.69											
신중함1									.64											
신중함5									.61											
신중함2									.42											
자기조절력4									.81											
자기조절력1									.78											
자기조절력3									.72											
자기조절력2									.57											

(계속 3)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인관계3													.73							
대인관계5													.69							
대인관계4	.33												.68							
대인관계2	.35												.49							
용기3													.66							
용기2													.63							
용기1													.58							
용기4													.51							
용기5										.34			.43							
규칙준수3													.75							
규칙준수2													.70							
규칙준수4													.70							
낙관성1													.70							
낙관성4													.58							
낙관성5				.35									.56							
지적능력4													.65							
지적능력1										.33			.60							
지적능력3										.37			.52							
예의2						.33							.60							
예의1													.60							
예의3					.35								.48							
장격4													.77							
장격2													.75							
고유치	5.13	5.08	4.22	4.18	3.99	3.86	3.55	3.35	3.22	2.94	2.79	2.75	2.74	2.58	2.38	2.13	1.77	1.74	1.56	1.42
설명분산	5.45	5.40	4.49	4.45	4.25	4.10	3.77	3.56	3.42	3.13	2.96	2.92	2.91	2.74	2.54	2.26	1.88	1.85	1.66	1.51
누적분산	5.45	10.86	15.35	19.80	24.05	28.15	31.92	35.48	38.91	42.03	44.99	47.92	50.83	53.57	56.11	58.37	60.25	62.10	63.76	65.28

주.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30 이상만을 보고함(탁진국, 2009).

된다고 판단하여 제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실함 요인은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되, 정직으로 요인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파계수는 .643이었다. 낙관성 요인의 낙관성2(나는 밝은 성격이다), 낙관성3(나는 언제나 표정이 밝다) 문항은 대인관계와 유머 요인 등 여러 요인들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낙관성 요인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알파계수는 .733이었다. 공정성 요인의 공정성1 문항(나는 공정한 사람이다)은 배려, 용기 요인 등 여러 요인들과 중복되었고 나머지 공정성 요인 문항들과 의미적으로 다른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정성 요인은 세 문항으로 구성하되 남아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규칙 준수로 요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파계수는 .769이었다.

도덕성 요인의 도덕성4 문항(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은 배려 요인과 높게 관련되었고 감사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도덕성 개념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도덕성 요인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도덕성이라는 요인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남아있는 문항들이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인 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예의’로 요인 명을 변경하였고, 알파계수는 .681이었다. 학구열 요인의 학구열 1 문항(나는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 한다)은 끈기, 공정성 요인들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제거하였으며, 최종 학구열 요인은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알파계수는 .865이었다. 자기조절력 요인의 자기조절력5 문항(공부하다 힘들어도 잘 견디는 편이다)은 끈기 요인과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 제거하였으며 최종 자

기조절력 요인은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알파계수는 .784이었다. 신중함 요인의 신중함6 문항(충분한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하는 편이다)도 마찬가지로 끈기 요인과 가장 높게 관련되어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신중함 요인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알파계수는 .784이었다.

대인관계 요인의 대인관계1 문항(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은 유머 요인과 높게 관련되어 제거하였다. 최종 대인관계 요인은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알파계수는 .859이었다. 지혜 요인의 지혜2 문항(나는 재능이 많다)은 예술성 요인과 높게 관련되었으며, 지혜 요인의 정의 및 나머지 문항들과 비교하였을 때 지혜 개념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하였으며 문항들이 지적인 능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지적능력으로 요인 명을 변경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적능력 요인은 모두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알파계수는 .689이었다. 창의력 요인의 창의력6 문항(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 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은 지적능력 요인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제거하였다. 최종 창의력 요인은 5개 문항을 포함하며 알파계수는 .872이었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이후 남겨진 문항들을 고려하여 진실함, 낙관성, 공정성, 지적능력 요인의 구성개념에 대해 재정의 하였고 도덕성을 예의로, 공정성을 규칙준수로, 지혜를 지적능력으로, 진실함을 정직으로 요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수정된 요인 명칭과 개념에 대한 설명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변경된 강점 요인 및 재 정의된 강점 내용 정리

이전 강점요인	이전 정의	변경 강점요인	변경 정의
도덕성	윗분들이나 속한 조직에 대하여 강한 윤리적 도덕률을 가지고 예절바른 행동과 말을 한다.	예의	왼쪽과 같음.
공정성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동일하게 대한다.	규칙 준수	정해진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따른다.
낙관성	낙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왼쪽과 같음.	앞으로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는다.
지혜	아는 것이 많은 편으로 지적인 정보습득이 빠르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제 해결능력이 있다.	지적능력	아는 것이 많은 편이며 지적인 정보 습득이 빠르다.
진실함	책임감 있게 모든 일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으로 주변의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는다.	정직	모든 일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집단별 요인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자료를 통해 얻어진 20개 요인과 94개 문항을 각 집단에 적용하여 동일한 요인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기법을 통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 즉 전체 응답 집단, 여학생 전체 집단, 남학생 전체 집단, 고등학생 전체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중학생 전체 집단, 남자 중학생 집단,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 동일한 20개 요인이 도출되어 20개 요인구조모형이 모든 집단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도덕성과 배려 요인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19개 요인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20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수추정방식은 ML법을 이용하였다. 20개 요인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χ^2 , NFI, RMSEA, TLI, CFI의 값을 확인하였고 표 5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증에서는 기각되었지만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χ^2 값이 커지고 이로 인해 영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는 제한점이 존재하기

표 5. 청소년 강점척도 20요인 모형의 부합도 지수

χ^2 (df)	RMSEA	NFI	TLI	CFI
140157.925 (df=4044)	.032	.917	.911	.919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RMSEA는 매우 적합한 수준인 .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NFI, TLI, CFI는 우수한 적합도의 기준인 .9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개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이며 구성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 요인들 간 상관분석

최종 요인 20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지나치게 높은 상관은 없으므로 모두 20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탁진국, 2009).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강점척도(김기년, 탁진국, 2013)의 구성타당도를 재검증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 32,64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총 94개 문항과 20개 강점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전체 107개 강점문항에 대해 전체 집단($N=32,640$)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전 연구와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오지 않아 해석이 어려워졌다. 요인의 의미를 보다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개의 요인에 중복되는 문항, 다른 요인에 더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외(탁진국, 2009)시켜 나간 결과, 총 13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94개 문항으로 구성된 20개 요인구조의 해석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강점검사의 20개 요인구조의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강점검사(김기년, 탁진국, 2013)가 다양한 청소년에게 실시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청소년을 성별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하위 집단에서도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각 집단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 전체, 남학생 전체, 중학생 전체, 고등학생 전체 집단에서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20개 요인구조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나 학년과는 무관하게 청소년 강점검사의 구성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개 요인구조보다 19개 요인으로 구성된 요인구조의 해석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요인은 다른 집단들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19번째 요인에서 예의와 배려 요인이 하나로 묶여져 나타났다. 예의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 배려는 친구에 대한 호의 및 도움 행동으로 정의되는데, 손강숙과 주영아(2014)의 청소년 자기표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자기표현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통과 가치의 중요성 및 공감과 배려하는 태도의 윤리적인 측면’을 ‘겸손과 배려’라는 요인으로 명명하여 사용했다. 겸손하고 예의바른 태도는 대인관계와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 웃어른이나 연장자에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며,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

방을 배려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최상진, 김시업, 김은미, 김기범, 2000; 손강숙, 주영아, 2014)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의 ‘예의’와 손강숙과 주영아(2014)의 연구에서 ‘겸손’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 집단의 예의 요인과 배려 요인이 묶인 것을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유독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추후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20개 요인 107개 문항 가운데 13개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제거된 10개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를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4개 요인에서 조작적 정의를 수정하였고, 4개의 요인 명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 “윗분들이나 속한 조직에 대하여 강한 윤리적 도덕률을 가지고 예절바른 행동과 말을 한다.”고 정의된 도덕성은 포괄적인 요인 명칭이라는 판단하에 예의로 요인명칭을 변경하였다.

두 번째,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동일하게 대한다.”는 공정성의 원 정의에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부분이 애매하다는 결론 하에 “정해진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따른다.”로 재정의 하였고 요인 명칭을 규칙준수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 “낙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의되었던 낙관성은 ‘낙천적인 시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 하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는다.”로 재정의 하였다.

네 번째 지혜에서 “아는 것이 많은 편으로 지적인 정보습득이 빠르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제해결 능력이 있다.”로 정의되었는데,

남아 있는 문항들이 지적 능력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은 편이며 지적인 정보 습득이 빠르다.”로 재정의 하였고, 요인 명도 지적능력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게 모든 일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으로 주변의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는다.”고 정의되었던 진실함은 남아있는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정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직으로 요인 명을 변경한 후 “모든 일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로 재정의 하였다.

13개 문항이 제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진실함에서 일부 문항이 제거된 이유는 친구와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들(예, 친구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친구들은 나를 믿음직스러워 한다)과 배려요인에서의 타인(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내용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낙관성 요인에서도 “나는 밝은 성격이다”, “나는 언제나 표정이 밝다” 문항은 웃는 것을 좋아하는 “유머”요인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요인에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 요인에서 “나는 공정한 사람이다” 문항은 공정하다는 의미가 폭넓게 해석(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준다, 잘못된 일을 올바르게 처리 한다 등)될 수 있기 때문에 배려나 용기와 같은 여러 요인들과 중복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예의 요인 문항도 감사를 통해 남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배려 요인 특성과 일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구열 요인에 속했던 “나는 수업시간에 집

중을 잘 한다.” 문항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끈기 요인과 내용상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거된 문항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요인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문항들을 제거하고 각 요인의 구성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전체 강점검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를 재검정한 청소년용 강점 척도는 청소년용 성격강점 척도의 변안과 이전 척도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이 개발한 성인용 강점 척도인 VIA-IS 강점 척도를 청소년이 사용하기에는 문항의 이해가 어렵고 문항수가 많아 Park과 Peterson(2005)은 24개 강점과 총 198 문항으로 10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용 강점척도(VIA Survey for Youth: VIA-Youth)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VIA-Youth는 한국어로 변안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권석만, 김지영, 하승수(2012)가 VIA-Youth를 한국인에 맞게 CST-A(Character Strengths Test for Adolescents) 검사로 개발하였으나 이 CST-A는 26개 요인(24개 강점, 주관적 행복척도, 사회적 선회도 척도)에 총 182문항으로 구성되어 원두리(2011), 이애경(2012)이 지적한 대로 문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김성순(2014)은 한국판 청소년용 성격강점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성격강점 목록을 중심으로 5개의 요인, 즉 우수성 추구, 초월, 열린 마음으로서의 지적 능력, 진실성, 용기를 중심으로 46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러

나 여전히 외국 척도를 변안하였기에 익숙하지 않은 요인명과 문항들이 보인다.

본 청소년 강점검사는 기존 검사개발과정에서도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청소년 집단에 적용했을 때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났으며, 한국에서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기초 연구 위에 변안 작업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항 수에서도 이전보다 간결해 졌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칭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강점 코칭 및 상담 관련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 대상 강점 연구가 극소수이고, 적은 수의 논문 중에서도 외국의 다양한 강점 척도를 변안하거나 국내 강점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일지라도 초등학생에 치중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미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된 청소년 강점 척도를 기반으로 전국 규모의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인 결과, 청소년 강점 척도라는 명칭에 걸 맞는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구성타당도 분석만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준거(예, 학생들의 학업성적 등)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준거 관련타당도 분석 등이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개의 요인들 중 15개 요인은 4문항에서 6문항으로 비교적 적절한 문항수로 보이나 정직은 2문항, 지적능력, 예의, 낙관성, 규칙준수는 각각 3문항으로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요인에 비해 문항 수가 적은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김지영, 하승수 (2012). *청소년용 성격 강점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전정환 (2012). *강점기반상담모형을 토대로 한 진로 의사결정프로그램이 전문계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년, 탁진국 (2013). *청소년 강점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803-828.
- 김성순 (2014). *한국판 청소년용 성격강점 척도 타당화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강숙, 주영아 (2014). *청소년 자기표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 복지연구, 16(3), 77-104.
- 송정두 (1981). *청소년 이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서울: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원두리 (2011). *경험논문: 성격 강점이 청소년의 안녕감과 적응적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51-167.
- 이미리 (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93-209.
- 이애경 (2012). *청소년의 비행과 성격강점, 심리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낙관성, 탄력성, 억압적 대처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 (2012). *성격강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13-730.
- 최상진, 김시업, 김은미, 김기범 (2000). *우리성, 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편향 귀인 현상에 대한 문화심리적 해석: 겸손행위의 심층분석을 중심으로*.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76-77.
- 탁진국 (2009).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splund, J. M. A., Lopez, S., Hodges, T. M. S., & Harter, J. (2007). *Clifton Strengths Finder 2.0 technical report: Development and validation*. Princeton, NJ: The Gallup organization.
- Black, B. (2001). *The road to recovery*. *Gallup Management Journal*, 1(4), 10-12.
- Buckingham, M., & Clifton, D. O. (2007). *Now, discover your strengths*. New York: Free Press.
- Clifton, D. O., & Nelson, P. (1992). *Sour with your strengths*. New York: Delacorete Press.
- Colby, A., James, J. B., & Hart, D. (1998). *Competence and Character through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tter, J. K. (1998). *Gage Park High Schol research study*. Princeton, NJ: The Galup Organization.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 Assessment*, 6, 149-158.
- Linley, A. P., & Stoker, H. (2012). *Realise2 Technical Manual*, UK: CAPP.
- Park N. S.,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 N. S., & Peterson, C. (2005). Values in Action(VIA)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Adolescent & Family Health*, 4, 34-40.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Reply: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a closer look at hope and modes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28-634.
- Linley, A. P., & Harrington, S. (2006). Strengths Coaching: A potential-guided approach to coaching psychology.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1, 37-46.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Educational Horizons (2006). The Clifton Youth Strengths Explorer Assessment: Identifying the Talents. *Today's Youth*, 84(3), 183-189.
- 1차원고접수 : 2014. 10. 02.
수정원고접수 : 2014. 12. 01.
최종게재결정 : 2015. 01. 26.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s Strengths Assessment Inventory

Green Lim **Ki Nyeon Kim** **Jinkook Tak** **Tae Eun Kim**
Gwang Mo Im **Go doh Kim** **Jun Seok Bang** **Seul Gi Im**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s Strengths Assessment Inventory(Kim & Tak, 2013). Data were obtained from 33,379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country. The whole data were divided into various subgroups to see if the same factor structure is consistently found for each subgroup. These subgroups are as follows: male and female students,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male junior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 female junior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showed that the same 20 factors emerged for the whole data as well as for each of the subgroups, except for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19 factors were found for the male high school group. Also, the names of four factors were changed. The interpretations and implications and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Strengths, the adolescents strengths assessment inventory, construct validity